

# 전북 경제 도약하는 계기로

### 도, 일본 수출규제 시행 대비 산업별 대응상황 점검 미래 신성장 동력 핵심소재 연구개발 적극 발굴키로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본격 시행(8. 28)을 하루 앞두고 송하진 도지사가 산업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타개할 해법 모색에 나섰다.

전북도는 27일 오후 3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도 7개 관련실국과 전북중기청,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코트라지원단 등 7개 기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정부가 지난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 결정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에 따라 이를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산업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그간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를 대비하고 도내 주력산업의 동향과 피해 예상 규모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은 지난 16~21일까지 5일 동안 뿌리기계, 화학, 탄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도내 주력산업 16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본산 핵심소재 사용 및 대체 가능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기업의 3.2%에 해당하는 52개 업체가 일본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내 또는 제3국을 통해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 대비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탄소(7.3%), 화학(5.1%), 조선(4.6%), 반도체(4.0%), 뿌리기계(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산업은 국산화 기술개발과 제3국을 통해 일본산 소재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파악했지만, 일본 경제보복 장기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피해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향후 7년간 7~8조원 이상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새로운 핵심소재 R&D를 적극 발굴해 정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효성첨단소재의 신규 투자 및 생산라인 증설, 탄소산업 중간재와 복합재 전문 생산시설 및 연구센터 구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시장 수요를 반영한 탄소융복합 소재 기술 다변화 및 건설·기계 등 다양한 탄소소재 개발 등 탄소산업 육성에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對)일본 수출 감소에 대비해 해외 통상거점센터를 확대해 신시장 수출관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 활력 촉진단과 멘토링단을 운영해 수출기업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현재 한일 갈등의 영향으로 국내 반일감정 악화에 따라 일본관광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해 국내 일본여행 취소 여행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일본 소재를 사용하는 도내 기업 대부분이 대체 가능하다"고 파악된 점은 다행이다"면서 "경영상 애로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 각종 규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체제를 더욱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우리는 탄소산업을 필두로 주력산업들이 특정국 원천소재에 의존하던 과거를 극복해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일본 수출규제 확대 대응 대책회의의 갖은 전북도 일본 수출규제 확대 대응 대책회의가 2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북도,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특별할인 판매된다.

전북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상시 개인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을 추석명절을 맞아 9~10월 2달간 50만원으로 구매하도록 상향해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할인혜택이 없는 단체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

로 추진 중인 기업·단체 3% 할인판매를 추석명절기간 8. 26일부터 9. 11일까지 5%로 상향 판매한다.

도는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다 40%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부연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품권 취급 은행(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을 첨부한 지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카드 영수증)를 작성해 전북상인연합회(전화 278-5803, 팩스 287-5804)에 신청하면 구입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원식 도 일자리정책관은 "최근 지역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장도 보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본격 시동

### 도, 개혁위원회 개최... 관련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심의·의결

전북도는 27일 도청에서 2019년 제2회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영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주요분야 관련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초 계획한 '2019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보고회,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샌드박스제도 등을 반영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2019년 규제개혁의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과제를 159건 발굴해 그중 19건이 수용되어 일부는 법령 등이 개정 중에 있으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발

히 운영하여 11개 시군 53개 기업체를 방문 86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5건을 해결했다.

특히 올해는 규제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눈에 띄는데 지난 7월에 개최된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와 국조실 규제신문고과장이 주재한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통해 오랜 숙원인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규제 등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으며, 토양 오염 피해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신청 규정 개선' 과제는 대표적인 수용과제로 올해 10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

제를 만든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규제준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기존규제의 준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써 이외에도 민간단체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와 세부운영기준 조문 신설 등 민간단체와 협력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담기 위해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의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심사청구시에 제출해야 할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여 신설·강화 되는 규제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번 조례안은 오늘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북도회의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 대표 3개 생생마을, 전국 20개 마을과 자웅 겨룬다

### 도, 오늘 대전서 열리는 행복마을 콘테스트 본선 참가

전북도 대표 생생마을인 임실 화정, 남원 노봉, 완주 안덕 3개 마을이 오늘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무대에 오른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 지난 달 도 자체 콘테스트를 거쳐 우리 도 대표로 최종 선정된 3개 마을이 전국 20개 마을과 자웅을 겨룬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주도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성과의 공유 확산을 목적으로,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장려하고, 그 성과를 평가·공유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콘테스트에 전북도 대표로 참

가하는 임실 화정마을(소득·체험)은 마을에서 생산한 쌀을 농한기에 전통쌀엿으로 가공, 판매하고 쌀엿 만들기 체험행사를 마련하는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마을소득증대와 농촌 체험 활성화한 마을이다.

남원 노봉마을(문화·복지)은 소설 혼불의 배경지라는 장점을 활용해 혼불문학관과 서도역 등 혼불 관련 공간 활용과 혼불의 정신을 마을 공동체에서 구현하고 짚풀 공예, 미용 프로그램 등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화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 안덕마을(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은 건강힐링을 테마로 한 황토한증막, 민속한의원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을 추진해 소득 향상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낸 점에서 우수마을로

인정받았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4개 분야로 진행되는 이번 콘테스트에서 임실 화정마을은 소득체험분야에, 남원 노봉마을은 문화복지분야에, 완주 안덕마을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분야에 각각 출전해 경연을 펼친다.

무대에서는 마을별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그간의 마을만들기 우수성과 등이 생생담 있는 프리젠테이션과 퍼포먼스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수여할 우수마을이 가려질 전망이다.

이천시 도 농촌활력과정은 "농번기에도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대회 준비에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면서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농민 주도의 농업정책인 삼락농정의 정책적 효과를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